

‘IS 사태’에 곤혹스런 광주·전남 무슬림들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마세요 우리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이슬람 교단 지도자 ‘이맘’(Imam)의 코란 제창에 따라 교인 150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북구 양산동 성원에서 합동예배를 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생명 등한시 하는 IS 무슬림으로 인정안해

한국인 청소년이 자진 가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Islamic State)의 무차별 테러 소식에 광주·전남 이슬람교도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이나 색안경을 끼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넘어 이슬람포비아(이슬람에 대한 혐오·공포)로까지 이어질까 하는 우려도 드러났다.

3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슬람교도 외국인인 9만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109만1531명) 10명 중 1명꼴이다.

광주·전남지역에 등록된 이슬람교(회교) 국가 외국인도 5062명(광주 2014명·전남 3048명)으로 전년도 3952명에 비해 28%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이슬람회의기구(OIC) 57개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주요 국가만 집계한 수 치라는 점에서 이슬람교인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광주만 하더라도 양산동에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광주 선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성원(聖院)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와 유학생이 지난 2008년 4월 전국 15곳 가운데 12번째로 세운 지역 성원이다.

이슬람교도들은 평일에는 집이나 작업장에서 예배(1일 5회)하고 금요일마다 성원에 와 합동예배에 참석한다. 교단 지도자인 ‘이맘(Imam)’ 압둘

광주·전남 무슬림 현황

- 광주 2014명·전남 3048명
- 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출신
- 제조업 생산직, 건설직 근무
- 광주 양산동 성원 신도 300명
- 매주 금요일마다 합동 예배
- 전남대 이슬람 유학생 129명



광주 양산동 이슬람 성원

마지드(39·파키스탄)는 지난달 30일 열린 합동예배에서 마호메트 언행록 ‘하디스’의 ‘악행을 보았다면 그것을 손으로 바꾸도록 하라’를 인용하며 무슬림을 자처하면서 동족상잔을 자행하는 IS세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마자르 이크발(29·광주과학기술원 물리학 4학·파키스탄)씨 등은 최근 성원 신축 공사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신도 대부분이 제조업 생산직, 건설직 등 저임금 근로자이고 최근 IS문제로 이슬람교에 대한 탈감지 않은 시선이 늘어 서 기부는 더딘 편이다.

3년째 금요일마다 전북 고창에서 합동예배에 참석하는 충그즈(27·키르기스스탄)씨는 “일하고 있는 하우스 업 주의 배려로 1시간 예배를 하고 간다”

며 “호남 각지에서 몰려드는 300명의 신도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새 성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무슬림 5명도 성원 예배에 나오고 있다. 자신의 이슬람교명을 ‘무자히드’로 소개한 이준기(45·영광군)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직으로 파견된 25년 전부터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며 “IS 사태로 인한 내국인의 우려 때문에 평소보다 이슬람교인이 5분의 1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889명으로 그중 이슬람교 국가 출신은 129명이었다. 팔레시아 유학생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19 ▲터키 11 ▲브루나이 10명 ▲우즈베키스탄 4명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각 2명 ▲레바논·세네갈·아제르바이잔·요르단·파키스탄 각 1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유튜브

(Youtube)에 ‘알광주(AI-Kwangju) TV’ 채널을 만들어 ‘한국인을 위한 코란 감습’ ‘이슬람 여성 하잡 쓰는 법’ ‘예배 방법’ 등 영상을 올리고 있다. 전남대는 오는 2월 대학원생 하산 아바스(건축공학과 박사과정·이집트)씨의 견의를 계기로 제2학생회관에 있던 예배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자(30·파키스탄)씨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IS 연계 세력이 반대파인 시아파 사원을 공격해 61명이 사망한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코란에도 피가 금지된 평화주의자인 우리는 생명을 등한시하는 IS를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한국인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단호히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폐기될 뻔한 5·18 당시 경찰 조사 기록물 빛 본 사연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광주사건 포고령 위반자 훈방처리 관계기록철’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5·18 관련자들에게 대한 경찰의 조사 기록이다.

A4용지 1200쪽 분량으로 당시 무차별적인 포고령 위반 혐의자들에게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5·18 관련자들의 피해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에도 오른 자료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연이 전해진다.

우선, 당시 광주경찰서장이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폐기 처분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서고에 보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현직 경찰의 기막힌 우연도 더해졌다.

“훗날 귀중한 역사 자료 될 것”
경찰서장 지시로 서고에 남아

당시 훈방자 동부경찰 근무 중
본인 기록 발견, 광주시에 알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지난 1980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조사 뒤 풀려난 A씨는 이후 경찰에 포함된 동부경찰서로 옮겨왔다. 이후 연이 자신의 이름과 조사기록 등이 적힌 ‘광주사건 포고령 위반자’ 기록을 보게 됐고 이 같은 사실을 광주시에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이관할 요청했으나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 관련 자료를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

현재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보관 중이며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공개가 제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인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수사 실태 등을 엿볼 수 있는 피의자 진술서·자술서·담담경찰관 이름 등이 포함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이관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성폭행 전력 택시기사 자격 박탈? 인정?

“공익보다 개인 불이익 크다” 2심서 운송사업 면허 인정

택시기사가 성폭행 전력 있다면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해야 할까.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3일 택시 기사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취소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가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분명한 만큼 택시 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을 뒤엎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 근거가 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자격 취소 등 처분으로 생기는 공익

보다는 A씨의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A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였는데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신뢰를 회복해 결혼하려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 광주시로부터 택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자격 취소 등 처분으로 생기는 공익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구명뗏목 부실 점검

해양안전설비 대표 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인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에 실려 있던 팽창식 구명 뗏목 중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면서 “승객 구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항소심 재판 시작

세월호 침몰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하역업체와 인천항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2일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진행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툰 쟁점,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항소재판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당장, 검찰은 1심 때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52)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의 업무 방해 혐의와 또 다른 선장 신모(48)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 매몰 혐의에 대한 입증 및 구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과실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확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부터 5차례의 공판기일 동안 쟁점 사안에 대한 집중 심리를 펼친 뒤 5월 12일 판결을 선고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광주고법은 세월호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던 김진환(연수원 34기) 판사 대신, 목포지원에 있던 장정환(연수원 35기) 판사를 2일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항소심 재판부터 참여토록 했다.

법원은 김 판사가 오는 17일까지 병가를 냈지만 건강상 문제 등을 감안, 장 판사에게 향후 세월호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 판사는 지난 2013년 신부전증을 앓는 아내를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알몸 보여주면 대출’ 속여 돈 가로채

○인터넷 대출상담 사이트에 글을 올린 20대 주부에게 접근, ‘알몸 영상 통화’를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가로챈 상습사기범이 철창행.

○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출상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주부 A(21)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주면 수수료 없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알몸 영상통화를 한 뒤 대출금은 커녕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선불 수수료 90만 원을 되려 받아 갚긴 혐의.

○김씨는 또 순천 B금방에 전화를 건 뒤 “금을 사려는데, 카드가 정지돼 있다. 300만 원만 입금해주면 카드 영입정지를 풀 뒤 돈도 갖고 금도 사겠다”고 속인 뒤 A씨를 금방으로 보내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토록 했는데, 경찰에서 “사채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리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상업지역) 사무실임대 (학원 시설완비) (사무실 가능) 중심대로변 주차시설완비

①1층, 2층 3층, 4층, 4층
②월수익 1,020만
③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1 기본 경매 강의
- 2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대 리모델링)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1 목포시 상락동(토221㎡, 건548㎡) 감정가3억7천, 최저1억7천
- 2 장성 삼계(토1068㎡, 건631㎡) 감정가2억5천, 최저9천1백
- 3 순천시 행동(토373㎡, 건1304㎡) 감정가172억, 최저120억
- 4 구례군 산동면(토1329㎡, 건958㎡) 감정가5억2천, 최저2억3천
- 5 동구 계림동(토445㎡, 1558㎡) 감정가10억, 최저7억5천
- 6 북구 운암동 (토273㎡, 건물247㎡) 감정가2억, 최저가1억7천3백
- 7 북구 중흥동 (토133㎡, 건물253㎡) 감정가1억7천, 최저가1억1천
- 8 남구 서동(토306㎡, 건물90.18㎡) 감정가1억6천, 최저가 1억1천

오피스텔

- 1 서구 치평동(매2.53, 건물331.12) 감정가6천7백, 최저가3천7백
- 2 서구 화정동(매14.144, 건물44.35) 감정가5천, 최저가5천

공장

- 1 광산구 월전동(토지4162㎡, 건물3281㎡) 감정가30억, 최저가16억
- 2 북구 월출동(건1746㎡) 감정가25억, 최저가11억
- 3 광산구 지죽동(토2073㎡, 건물1187㎡) 감정가16억, 최저가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